

“소아·청소년 사망 심층 분석 필요”

국가감염자문위, 코로나19 예방접종 체계 점검 등 주문 “고위험군, 미루지 말고 즉시 검사…치료제 적기 처방 중요”

정기적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최근 광주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 증가 및 사망사례 발생과 관련해 사례 심층 분석을 비롯한 어린이 예방접종 체계 점검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8일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유행상황을 분석해보면 기간 내 재감염 사례,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보고가 확인되고 있다”며 “데이터 중심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로 사망한 10세 미만 어린이는 누적 27명으로, 이 중 광주 1명 등 4명의 사례가 지난날에 발생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체적인 모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사망인지, 영유아가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좀 봐야한다”며 “아직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문위에 있는 소아·청소년 감염 내과 전문가들이 최근에 (사망자가) 느는 데 대해 굉장히, 각별하게 우려하고 있어 정부가 더 경각심을

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절대토 강제 접종이나 강력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보호자나 아동에게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고위험군이 적기에 치료제를 처방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험 환자들이 치료제 처방이 늦게 돼서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은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고, 코가 막히고 냄새를 잘 못 맡는 등 코로나19의 흔한 증상이 있을 때 감기러니 하고 미루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증상이 있는 첫날 약을 먹는 경우와 그 다음 날 먹는 경우 치료의 효과가 많이 다르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약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여전히 예방접종은 가장 주요한 방역 수단으로, 특히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차 접종까지 아직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고위험군이 철저히 보호된다면 고위험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독감

수준으로 낮추는 시기가 그렇지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5292명이 발생했다. 옛새래 10만명을 넘기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5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4월 11일(9만912명) 이후 17주 만에 처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1일(4만 4654명)의 1.24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5일(3만 5858명)의 1.54배다.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단위로 2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은 지난달 말부터 완화됐으나 1주일 전 대비 배율은 최근 일주일 사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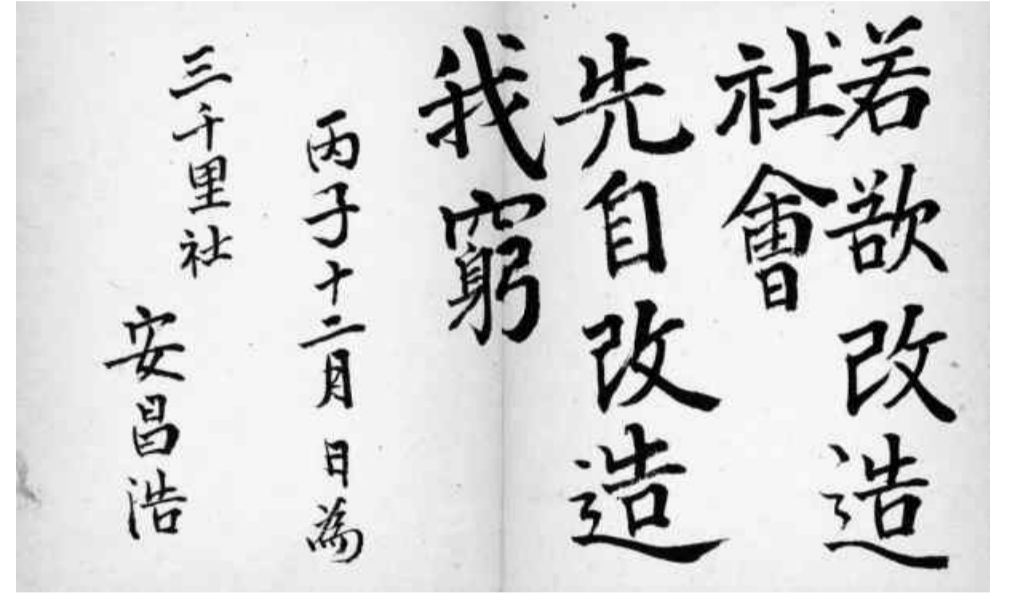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중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휴가철 검사 건수 감소로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정점이 꺾여도 유행은 길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광주·전남지역도 광주 1997명, 전남 2045명 등 네자릿수 신규 확진을 이어갔다.

다행히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27명이 위중증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 시·군별 확진자 수는 순천 414명, 여수 341명, 목포 299명, 광양 189명, 나주 164명, 무안 100명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구·안창호·한용운 선생 유묵 특별전

광복 77주년 기념...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김구·안창호·한용운 선생의 유묵 총 6점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광복 7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송호섭),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중규)과 공동으로 독립운동의 거목인 김구·안창호·한용운 선생의 친필 휘호를 9일부터 21일까지 일반에 공개하는 특별전시회를 연다. ‘유묵, 별이 되어 빛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임시정부기념관이 일반에 최초로 공개하는 백범의 친필 휘호 ‘광복조국(光復祖國)’ 외에도 스타벅스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증한 김구·안창호·한용운 선생의 유묵 5점 등 모두 6점이 선된다.

맨 위 사진은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 ‘광복조국’이며, 아래 사진은 도산의 친필 휘호인 ‘약육계조사회 선자계조아공(若欲改造社會 先自改造我窮)’로, 만일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개조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잘 안쓰는 국유 토지·건물 매각한다

5년간 ‘16조+α’ 규모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매각하기로 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공공부문에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탬이 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유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인데,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이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일반재산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목적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

는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나도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이며 대장가가 약 900억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000억원 규모의 농지 1만 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행정재산은 종조사 테크포스트(TF)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기로 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에 나서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활용률이 낮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은 온비드(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즉시 매각하기 어렵거나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을 검토한다. /연합뉴스

‘조선지질도’ 복원 성공

우리나라 최초의 ‘땅속 지도’인 ‘조선지질도’와 ‘대한지질도’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한국지질지리연구원(8일 밝혔다. 이번 복원은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으로 약 1년에 걸쳐 작업이 진행됐다.

한반도의 지질 관련 정보가 기록된 조선지질도는 일제 강점기인 1924~1938년 제작된 축적 5만대 1의 국내 최초 지질도이다. 국내 지하자원 수탈이라는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처음으로 우리 국토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지질 연구의 기초 자료로 국내 지하자원 탐사 등에 활용돼온 가치가 인정돼 등록문화재 603호로 지정됐다. 광복 후인 1956년 순수 국내 지질학자들이 발간한 대한지질도(등록문화재 604호)는 한반도 전체의 지질 분포를 알 수 있게 축적 100만대 1로 제작됐다. 주요 지질 성분이 색으로 표현돼 있으며 국내 학자들의 연구로 제작돼 학술·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조선지질도(1938)와 대한지질도(1956), 대한지질도 개정판(1981) 등을 복원했다.

조선지질도는 1년에 걸쳐 왜곡·변색된 부분을 개선하고 찢김·결실 부분은 보존성이 우수한 한지를 이용해 보강하는 등의 복원처리를 해 기록물의 보존수명을 연장시켰다. /연합뉴스

전남 자생식물 개엽 빨라지고 낙엽 늦어져

완도수목원, 산림식물종 분석

전남지역에서 자생하는 기후변화 산림식물종의 잎이나 꽃이 피는 분월 개엽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잎이 떨어지는 가을철 낙엽 시기는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등이 전남도 산림식물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8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완도수목원은 산림 분야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보전을 위해 전국 국립수목원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후변화 산림식물종 식물계절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물계절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식물의 생활사로, 기후변화의 지표로 이용된다.

완도수목원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완도수목원, 완도 상왕산, 영암 월출산, 완도 정도로,

해남 두륜산 등에서 식물계절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지난 10년여간 조사 결과, 개엽 시기는 1년에 0.69일씩 빨라지고 있고, 단풍과 낙엽 시기는 1년에 0.45일씩 늦어지고 있으며 봄꽃의 개화 시기는 1년에 0.94일씩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분, 땅 삽·니다

맹지는 안삽니다.
문의. 010-3605-500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집입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예일과정)
일시: 2022.9.13(화) 오후7시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임규우측2층)
수강료: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시: 2022.9.6(화) 오후7시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산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